

“광장문화 활성화 기여...방향성 고민 필요”

광주프린지페스티벌 24일 마무리...지난 3년 성과 토론회

전당권역 활기 띠고 예술가 공간 제공 대안적 실험장 마련
흥미 위주 탈피...선택 집중 통해 특화된 콘텐츠 만들어야

2018광주프린지페스티벌이 오는 24일 공연을 끝으로 8개월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한다.

지난 3년간 5·18민주광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하늘정원, 금남로 일대에서 진행돼 온 프린지페스티벌은 문화 향유 기회 확대, 공연예술가들의 공연 기회 제공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또한 축제의 활성화로 외부 관광객 유치와 전당권역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그러나 행사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또한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에 걸쳐 진행된 탓에 일정상에 대한 피로감과 단순하고 반복적인 흥미 위주의 행사는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된다. 특히 지나치게 많은 콘텐츠에 대한 적절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대두됐다.

최근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의 지난 3년간 성과와 과제, 미래 방향을 가늠하는 토론회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광주프린지페스티벌 측은 광주문화재단 4층 다목적실에서 ‘광주프린지페스티벌, 짚어보고 전망하다!’를 주제로 평가회를 가졌다. 지난 3년간 진행돼 온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을 돌아보고 향후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이날 평가토론회에는 정형균 프린지페스티벌 총감독, 황혜신 독립기획자, 최영화 호남대 미디어영상공연학과 교수, 김종석 용인대 연극학과 교수, 조인형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지원 광주문화재단 문화사업실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정형균 프린지페스티벌 총감독이 3년 동안 진행된 프린지페스티벌의 성과, 현황을 공개하는 발제로 시작했다. 정 감독은 “프린지를 통해 자유와 평화 등 광주 정신을 표현했다”며 “주말 상설 운영을 통해 5·18민주광장의 활력과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예술가들에게 공간을 제공하는 대안적 실험장으로서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광장문화가 형성되고 거리 공연이라는 장르가 탄생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며 “향후에는 분기별로 집중화, 플랫폼 개발, 국내외 교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도 관심을 기울여야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황혜신 독립기획자는 거리 예술 축제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황 기획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광주만의 특화된 문화예술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며 “축제와 플랫폼의 이원화를 통해 거리예술 콘텐츠를 생산하는 플랫폼 축제로 거듭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뒤이어 참가 패널들의 평가가 있었다. 패널들은 광주의 문화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지속성’을 꼽으면서 이에 대한 프린지페스티벌의 공을 인정했다. 반면 방향성에 대한 고민과 ‘관객을 어떻게 모으고 움직일 것인지’에 대한 관객 개발 전략 등을 주문했다.

김종석 용인대 연극학과 교수는 ‘프린지페스티벌 개방성과 실험성 그리고 관객’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오락거리가 아닌 일상공간에서 펼쳐지는 새로운 도전에 참여하고자 하는 관객을 먼저 자각하는 것이 우선 순위”라고 강조했다.

최영화 호남대 미디어영상공연학과 교수는 스트리트 퍼포먼스를 통한 공간의 활성화라는 관점에서 역동적 창작과 수용을 주문했다.

조인형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관광 활성화가 또는 지역 내 예술생산 및 향유 기초체력 향상인가’ 개념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두 토끼를 잡는다는 과욕보다 예술가의 근력향상과 시민들의 문화적 역량 발산의 장으로 나가는 것이 어떨까”라는 주장을 제시했다. 또한 “프린지인태내셔널의 비중이 과하다며 페스티벌을 구성하는 하나의 구성요소로 간주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고 덧붙였다. 패널들의 토론 이후 시민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한편 오는 24일 마지막 페스티벌에는 국내 거리 공연 1인자들이 총집결해 화려한 무대를 선보인다.

독일 세계 거러마술대회에서 베스트 코미디상을 수상한 한국 코미디 마술사 ‘크레이지 미스터 제이’, 2017광주문화재단 선정 ‘프린지를 빛낸 10대 공연’으로 선정됐던 ‘팀클라운’의 ‘경상도 비눗방울’ 등 국내외는 물론 세계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티스트들을 만날 수 있다. 문의 062-223-0410.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문화예술 인사 일일 명예교사로 광주 온다

23일 이지송 전 CF감독

28일 박애리·원일 예술감독



이지송 전 감독 소리꾼 박애리

문화예술 인사가 일일 명예교사로 광주를 찾는다. 2018 문화예술 명예교사 ‘특별한 하루’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주관으로 오는 23일과 28일 오후 7시 광주시 남구 사동 광주음악산업진흥센터 피크뮤지홀에서 열린다.

23일에는 이지송 전 CF감독과 밥장 일러스트레이터가 강단에 서서 ‘여행의 기록, 예술이 되다’를 주제로 강연한다. 현대자동차, 브라보론, 오리온 투유 등 유명 광고를 연출한 이 감독은 은퇴 후 미디어 아티스트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28일에는 소리꾼 박애리와 원일 예술감독이 ‘우리 음악, 마음을 잇다’를 주제로

로 시민을 만난다. 드라마 ‘대장금’ 주제가와 ‘오나라’를 부른 박애리는 팝핀댄스와 국악이 접목한 무대를 펼치며 국악 대중화에 힘쓰고 있다.

각 강좌마다 네이버 예약 페이지(han.gl/oB16I)를 통해 선착순 30명 신청을 받는다(현장 접수 가능). 문의 02-376-1586.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여성 듀오 ‘원보틀’ 보틀라이브 23일 광주아트홀

여성 듀오 ‘원보틀’ <사진>이 관객의 사연을 읽어주며 노래하는 ‘보틀라이브’가 오는 23일 오후 7시 30분 광주시 동구 황금동 광주아트홀에서 열린다.

일렉트로닉 팝 여성 듀오를 내건 원보틀은 올해 광주문화재단이 진행하는 문화예술펀딩프로젝트 ‘만세만세 만만계’에 참여해 3차례에 걸쳐 공연을 열

고 있다. 인디밴드 바다프로젝트와 함께 하는 이번 공연에서는 관객들의 사연을 읽고 이와 어울리는 노래를 선곡해 들려준다. 원보틀은 그들의 페이스북(facebook.com/onebottle12)을 통해 사연을 받고 있다. 문의 062-670-7957.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프로젝트 루미너리 공연 모습.



‘마트’의 공연 모습.

광주국제아트페어 관람객·판매액 늘어 성과 첫 참여 갤러리들 미술시장 규모 아쉬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 광주 국제아트페어(아트광주 18)가 지난해 보다 소폭 늘어난 판매액과 관람객 수를 기록하며 18일 막을 내렸다. 4일간 다녀간 관람객 수는 지난해보다 6000여명이 늘어난 2만6000여명 수준이었으며 판매액은 지난해보다 8000여만원이 증가한 15억8000만원이었다.

예산 삭감과 준비 기간 부족 등 악조건 속에서 행사를 치른 점을 감안하면 나름 성과를 보인 셈이지만, 광주 미술 시장 규모에 실망한 일부 국내 타지역 갤러리와

해외 갤러리들의 목소리도 들려 콜렉터 유치 등 미술 시장 판을 키우는 데 힘을 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10개국 70개 갤러리 부스(해외 18개)와 102개 개인부스가 운영된 올해 행사 판매액 15억8000만원 중 갤러리 판매금액은 8억8000만원, 개인 판매금액은 6억9000만원이었다.

해마다 작품을 구입하는 광주시립미술관은 2억원의 예산으로 모두 39점을 구입했다. 개인 작가 부스에서 10점, 갤러리 부스에서 29점을 구입했다. 광주 갤러리 13

점, 타 지역 갤러리 14점, 해외 2점 등이었으며 고가 작품은 700만원 수준이었다. 해마다 작품을 구입했던 국립현대미술관은 올해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내 갤러리 중에는 광주 이화갤러리가 신수정 작가를 단독 초대, 100호 대작 등 10여점을 판매했으며 봄갤러리로 나온 백예경 작가도 좋은 실적을 올렸다. 부산의 갤러리 조이 역시 한희원·김왕주 작가의 작품을 다수 판매했다. 해외 갤러리 중에서는 프랑스 사테리 갤러리의 판매액이 높았다.

올해 처음 참여한 일부 갤러리들은 광주 지역의 적은 시장 규모에 대해 적잖이 늘리는 모습이었다. 스타 제프쿤스 작품 등을 가지고 나온 SM Fine Art 갤러리 관계자는 “광주라는 도시에 조금은 기대가 있었는데 움직임이 거의 없어 아쉬웠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갤러리 관계자 역시 “한창 성장하고 있는 싱가포르 미술을 알리고 싶어 참여했다”고 말했지만, 바로 직전 참여한 부산과 너무 다른 분위기라 실망하는 눈치였다.

관람 환경은 무난했다는 평가다. 지난해 보다 행사 공간이 3개월에서 2개월로 줄어들었지만 VIP라운지 등 불필요한 공간을 로비로 빼내고 부스를 넓적하게 사용했고 관람 동선도 편안했다. 하지만 준비 기간이 짧아 갤러리와 작가 유치에 올인하면서 콜렉터 초청과 홍보 등에 손이 조금밖에 미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한편 광주시는 올해 행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평가회를 통해 광주아트페어 운영방식과 주제, 정체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전개할 계획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여성재단 ‘젠더 브리프’ 35호 펴내

광주여성재단이 최근 ‘젠더 브리프’ 35호를 펴냈다. 젠더 브리프는 광주 성평등정책 이슈와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정책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매년 6회 발행되고 있다.

이번 호에는 광주지역 여성장애인의 취업현황 실태와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젠더 브리프는 “광주시 장애인 인구는 6만8569명으로 그 중 여성장애인은 3만여 명이 달한다”며 “연령대별로 70대 이상에서는 여성장애인 비율이 훨씬 높아져 고령, 장애, 빈곤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취약계층화가 예측되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

장했다. 또 ‘광주 여성장애인 취업현황과 지원 방안 연구’ 결과를 들어 “조사대상자 중 90%가 취업경험이 있지만 평균임금이 50만~100만원 미만은 26.4%에 달했고 사무직은 전체의 17%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젠더 브리프는 결론에서 “여성장애인의 취업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에는 직업훈련교육에서 장애유형별 교수학습법의 개발(세분화)과 구직활동에서 워크투게더(취업정보사이트) 가능 확대·강화와 면접지원 등이 있다”고 말했다. 문의 062-670-0524.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지붕위의 막걸리

매주 수요일 밤 11시

CHANNEL A